

오코와 하코의 예절 대소동





작가프로필

부안의 따스한 자연을 담은 동화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작가님은 언제나 '성실'을 소중히 여기며, 강한 책임감으로 세상에 온기를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갖자'는 마음을 잃지 않는 넉넉한 품을 지니셨습니다. 평소 탁구와 요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시며, 봄날의 화사한 철쭉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봄 햇살처럼 따스한 성품과 삶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어른들에게는 편안한 심포가 되어줄 작가님의 따듯한 동화 세계를 만나보세요.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오코와 하코가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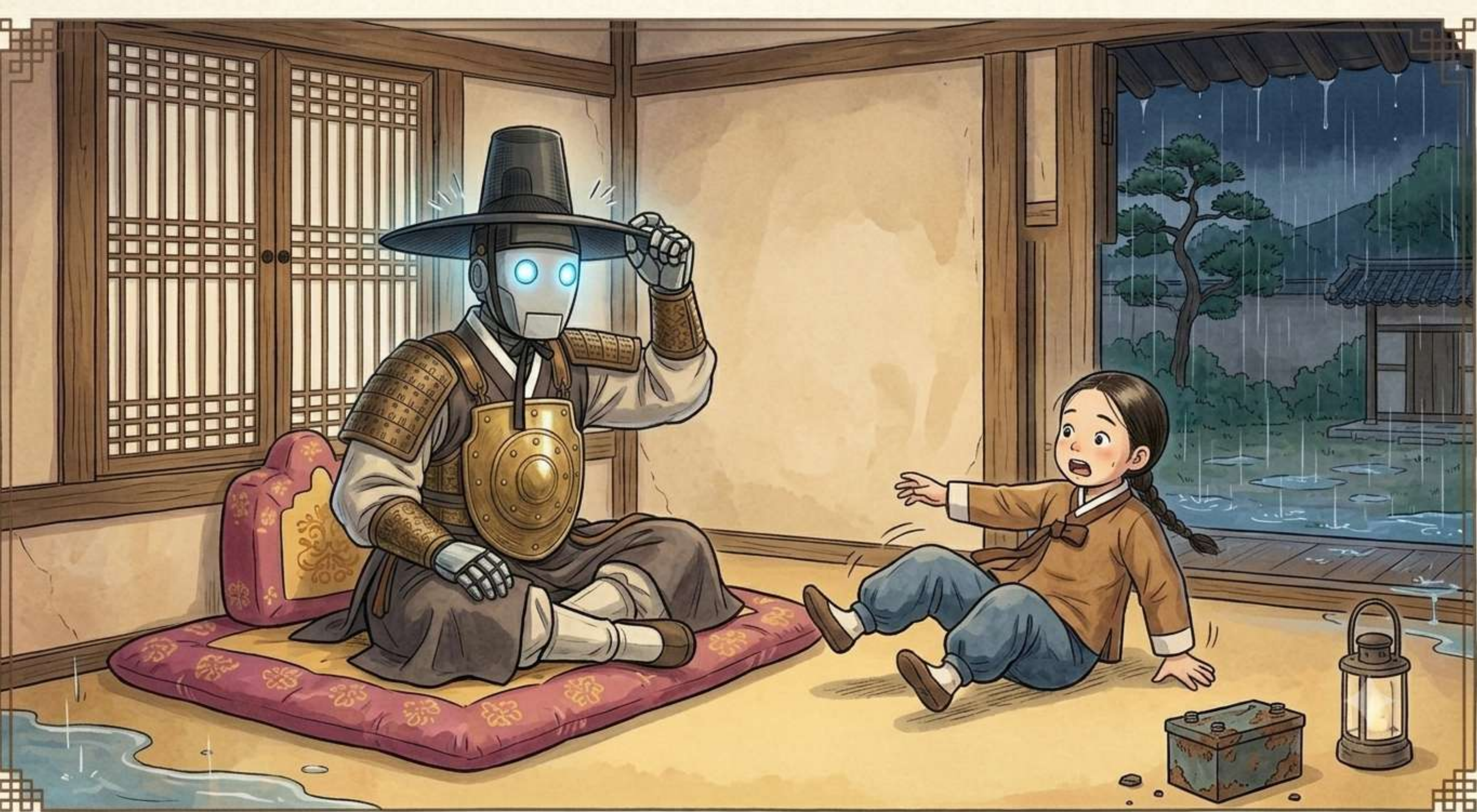
하늘에서 빗방울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하음이는 낡은 고물상 구석에서 먼지투성이 로봇을 발견했어요.

가슴팍에 삐뚤빼뚤 새겨진 글자는 바로 '오.대.감.'

"우와, 이건 무슨 로봇이지?"

하음이는 눈을 반짝이며 로봇을 품에 꼭 안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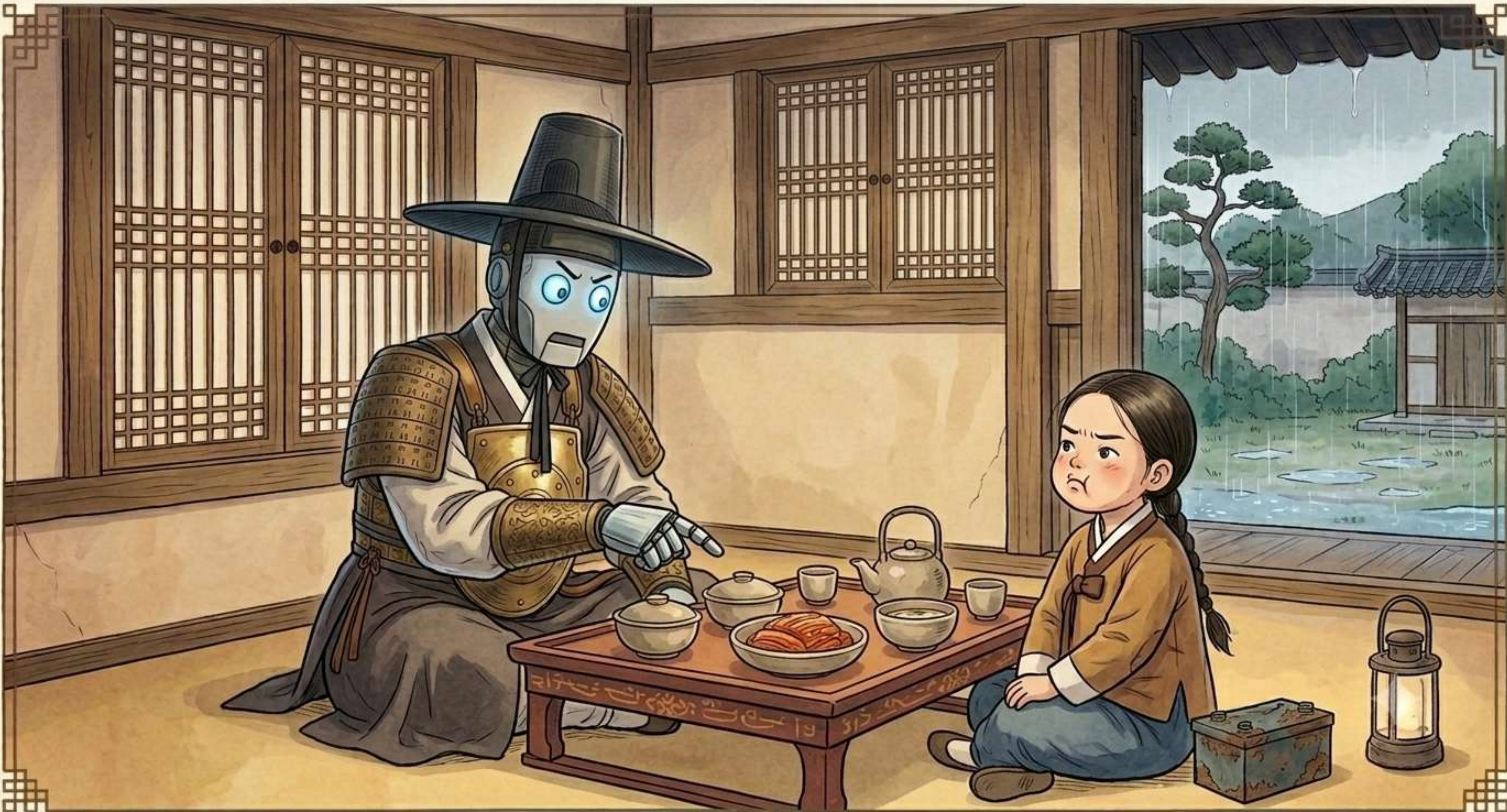
[2장]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니, 천둥이 우르렁광광 치듯 지직 소리가 났어요.

이내 로봇이 스르륵 눈을 뜨더니, 낯은 갓을 에헴 고쳐 썼어요.

"오메! 참말로 맑은 세상이네! 이 몸이 오대감이여, 그리여!"

하음이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쿵 찰고 말았어요.



[3장]

하음이는 로봇에게 '오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오코는 틈만 나면 잔소리를 삼켰어요.

특히 밥상머리에서 하음이가 반찬을 투정하자 눈을 크게 부릅떴어요.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는 법이여! 이 김치랑 무가 얼마나 맛있고 알찬 음식인데 맥없이 투정을 부린다냐?"

오코의 호통에 하음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4장]

그러던 어느 날, 삐삐빅 소리와 함께 오코의 전원이 툭 꺼져 버렸어요.

하음이는 소중한 친구 오코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밤새 포기하지 않고 똑

딱딱딱 조그만 AI 코딩 펫 '하코'를 만들어 냈지요.

하코는 오코를 고치기 위해 복잡한 회로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어요.

과연 오코는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5장]

"주인님, 오코님 깨우기 성공!"

하코의 활기찬 목소리에 오코가 눈을 번쩍 뜨며 어깨 위 하코를 바라보았
어요.

"하코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누워 있냐?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한
사발 떠 오그라."

깨어나자마자 시작된 오코의 잔소리에 하코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어
요.



[6장]

새들이 마당에서 재작재작 지저귀는 오후, 오코가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느라 인사를 안 하니 참말로 속상하네. 예절을 가르쳐야 쓰겠어!"

하코가 신나게 꼬리를 살랑이며 오코의 앞길을 안내했어요.

두 친구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넓은 세상으로 나섰어요.



[7장]

놀이터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서로 먼저 타겟다며 헐레벌떡 밀치고 있었어요.

오코가 달려가 "차례차례 줄을 서서 타야지, 새치기를 하면 쓰겠냐!" 하고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도망쳐 버렸어요.

지쳐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오코에게 하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반짝였어요.

"오코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예절 댄스 게임'을 함께 만들어요!"



참말로
재밌어요!

[8장]

다음 날, 놀이터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파도가 출렁출렁 치듯 모여들었어요.

오코의 구수한 목소리와 하코의 멋진 홀로그램 화면이 합쳐지자, 놀이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음료수를 꿀떡꿀떡 마시고 환호했어요.

"오코 할아버지랑 하는 예절 게임, 참말로 재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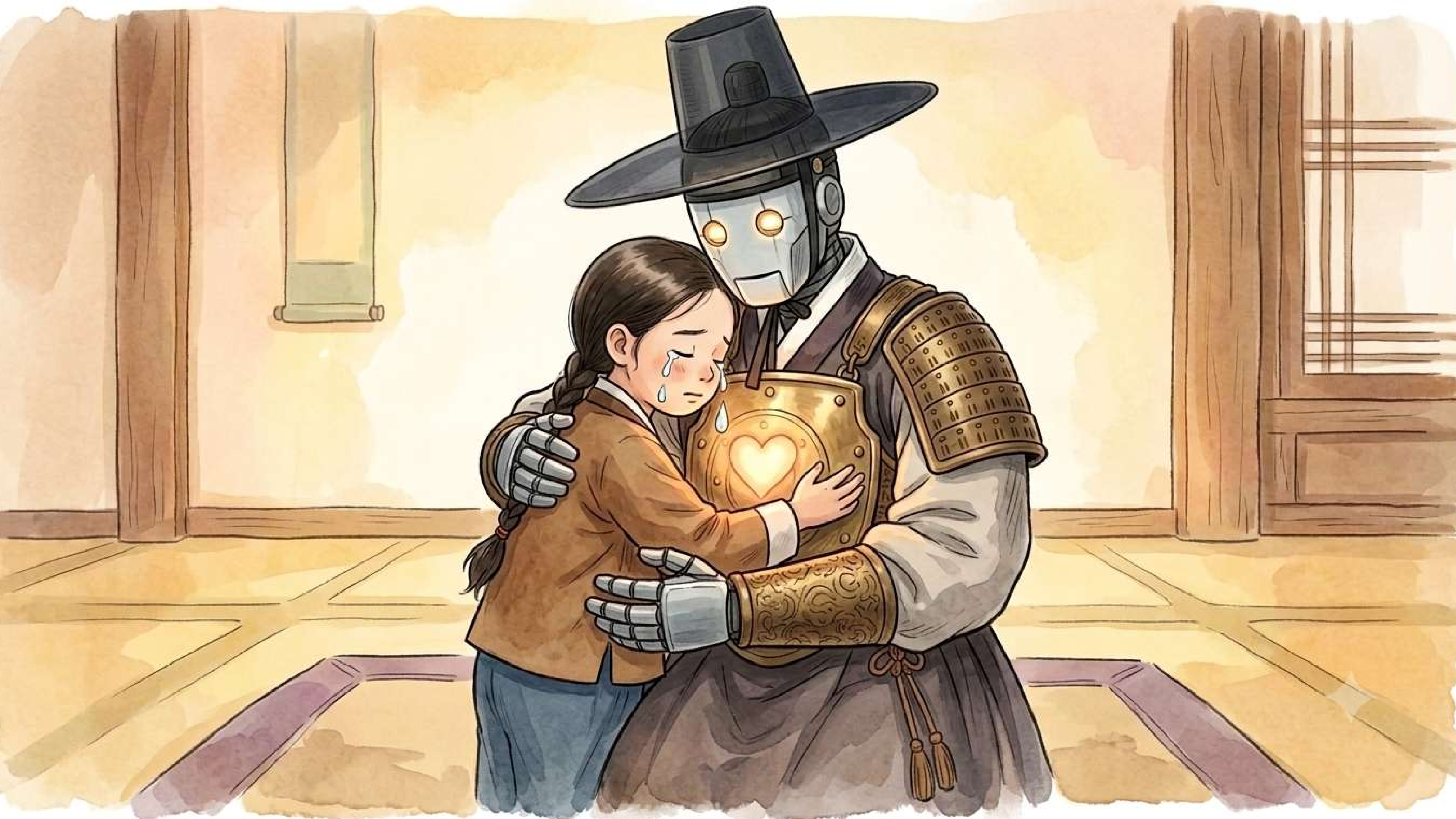
[9장]

하지만 너무 바빠지자 두 친구는 지쳐 갔고, 결국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지며 다투고 말았어요.

"하코야! 전통을 지켜야지, 자꾸 번쩍거리는 코딩만 앞세우면 답답하잖냐!"

"저 이제 안 해요!" 하코가 획 돌아서자, 오코의 가슴등이 꺼지며 차갑게 멈춰 버렸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고인 하코는 가슴이 미어지며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10장]

"오코님, 잘못했어요... 오코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하코의 따듯한 눈물이 오코의 가슴에 닿자, 로봇이 스르륵 눈을 뜨며 하코를 꼭 안아 주었어요.

"하코 네가 나를 위해 울고 있었구나. 오메, 가슴이 뭉클하네."

진짜 예절은 배려하는 따듯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두 친구는 오늘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거리를 누빈답니다.

